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3호 무위사 극락보전



무위사 극락보전

김선태

성숙의 울타리가 없는
무위사 앞마당에 극락보전 있네
해탈문을 지나자마자
정면으로 중생들을 맞이하고 있네.

주심포에 맞배지붕을 얹은 모습이
어찌나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지
앞에서 보면
단아하고 검소한 선비 같고
옆에서 보면
고깔을 쓴 비구 스님 같기도 하네.

그러나 이곳은 극락정토의 주인이시자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라
그 엄숙함이 여전히 살아 있네
게다가 명품 벽화들까지 품고 있으니
진정 조선 제일의 극락보전이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절간인
무위사 앞마당에 극락보전 계시네
멀리 월출산 능선을 바라보며 계시네
가까운 죽전 마을을 굽어보고 계시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선태 시인은... 1960년 전남 강진 출생.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199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

학교폭력 해법, 교법사에게 듣는다

연기 통한 생명존중 가르침이 '약'

緣起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중립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 중립학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교법사들로부터 그 비결과 해법을 들어본다.

정리=조동섭 기자 celana@hyunbul.com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현익재 前 금정중 교장



학교폭력은 성적위주 경쟁으로 인한 학생 인성지도가 부족한 탓이다. 부모들의 맞벌이로 가족 간 대화가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가정에서 인성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어졌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견제할 수 있는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문제학생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요구된다.

명상교육도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는 주5일제를 활용한 템플스테이, 방과 후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다.

학생의 다양성 인정을 통한 소통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교사가 신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선후배간 친척맺기 추천

신병현 교법사(대전 모문교)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연기사상을 몰이해한 탓이다.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것은 성적지향적 학교교육의 탓도 크다.

아이들끼리 자유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효과가 좋았다.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웃고 즐기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친구들과 이해하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교복·참고서 나눠주기 등을 통해 선후배간 친척맺기도 해볼만하다. 선후배간 유대관계 강화는 세상에 나 외의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 방안이다.

사찰·불교계도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음악·명상 등을 통해 동적인 아이들의 관심을 잠시 자신 내면으로 돌려줄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왜 저렇게”라는 접근 중요

이학주 교법사(동대부여중)



아이들을 대할 때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기 있는 학생이라 생각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 아이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문제다”라는 시각보다는 “왜 행동을 나쁘게 할까”라는 접근이 중요하다. 욕을 하는 아이라도 욕하는 것을 나무라기에 앞서, “얼마나 불안하면(아프면) 욕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불행·불안·불만족한 상태를 살펴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지 끊임 없이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공감을 통해 보람·행복을 느끼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다. 템플스테이를 하더라도 감성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아에 문제 부모 있다

권진영 교법사(동대부여교)



학교폭력은 전부터 있어왔다. 언론이 나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들의 뇌 발육은 전두엽이 미발달해 있다. 아이들의 문제는 인격 문제라기보다 뇌발

달 과정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발달한 결과이다. 학교폭력도 같은 원인이다. 전염병이 아닌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문제아 이들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 문제아에게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과 직결된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도 특별한 아이들은 별도로 케어하면 된다.

정서안정·인성교육 필수

이육태 교법사(부산 해동중·동명대 외래교수)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핵가족화로 조부모 등에게 받던 정서안정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이유일 수 있겠다.

중립학교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인성교육의 기회가 적다. 사립이다보니 남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학생지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아이들의 정서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서에는 다도, 붓글씨 등 전통예술 문화체험이 도움이 된다. 명상도 중요하다.

이에 앞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匾別 협의회 통해 수도권 포교 박차

자승 스님, 직할교구총회서 밝혀

서울시 25개구의 조계종 사찰 연합기구가 4월 만들어진다.

조계종 직할교구총회(의장 자승 총무원장)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2년 제1차 교구총회 이틀 끝자료를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직할교구는 서울지역 포교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서울시내 18개구에 협의기구를 발족했다. 4월까지 나머지 7개구에 협의기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직할교구 총회의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직할교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지역단위로 주지 협의회를 구성해 사찰간 연계된 사업의 조성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종단과 불교의 역할을 지역사

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복지·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폐회사에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 법회가 최우선이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담보중인) 이대라면 10년, 20년 후 중단은 주저않을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임을 소홀히 하더라도 어린이 법회를 열심히 하면 인사고과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역주민이 사찰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찰이 지역에서 복지와 문화 분야를 철저히 한다면 이 역시 높이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할교구총회에서는 2012년도 교구예산 4억1952만원을 확정했다. 조동섭 기자

환경위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조계종 환경위원회 회의서, 환경위원회령 개정 논의

조계종 환경지문기구인 환경위원회 관련 법령이 조직 역량 강화와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환경위원회령은 환경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환경 정책연구 등 환경위원회가 종령상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위원회는 불교수무원 특성별 사례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불교 및 우리나라 고

유 식생 보존을 위한 전통식생 분야도 연구할 예정이다. **관기사 4면**

‘불교환경의제 21’의 지속 진행을 위한 실천지침서 발간, 실천사찰 지정 등 실천운동도 펼친다. 케이블카(삭도)로부터 자연·수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현재 케이블카는 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설악산 양양, 월출산 양양, 한려해상 사천 등에서 관할 지자체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환경위원회는 케이블카 건설이 사찰 및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해 3월 중 환경위원회의 삭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삼론종 제4세 종정 각몽당 석혜승 대종사 추대법회에 대한 감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3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제4세 종정 석혜승 대종사 추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제방 여러스님,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종도 여러분,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먼저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대법회를 통해 대한불교삼론종은 제4세 종정 석혜승 대종사님을 모시고 일치단결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56(2012)년 3월 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석진봉 · 종도일동